

허울뿐인 '신재생에너지 메카' 전남

태양광 32%·풍력 60%·조류 99% 생산하고도

기반시설 부족 에너지 자원 낭비·민간투자 시들

태양광, 풍력, 조류 등 신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전남에서 생산된 전력이 대부분 지역 내에서 소비되지 못하고 있다. 인근에 대규모 전력수급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들 전력을 수도권 등지에 내보내는 송전선, 변전소마저 크게 부족해 에너지 자원 낭비, 민간투자 저조 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관련기사 3면>

전남도의 요구로 한국전력이 최근 변전소의 처리 용량을 늘리는 '땀길 처방'에 나섰다. 땀길이란 변전소 용량 부족을 보완하는 등 전력 생산 및 공급 시스템 자체의 대폭 수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31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전남지역에서 생산되는 태양광발전소의 전력은 전국 생산량의 32%, 풍력은 60%, 조류는 99% 등을 차지하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긴 일조시간, 해안가의 강한 바람, 울퉁불퉁한 유속 등 신재생에너지 자원이 곳곳에 산재해 전남이 신재생에너지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전남에서 생산된 신재생에너지의 전력을 송수신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지역 내 한국전력의 변전소 45곳의 주변에서만 전력이 생산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에 신재생에너지 생산 전력 수급 시스템이 갖춰지지 못한데다 한빛원전에서 생산된 전력으로도 충분히 신재생에너지 생산 전력 90% 이상을 수도권 등지로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변전소 용량 부족으로 '쟁탈전'까지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송

전선이나 변전소 설치에 대규모 예산 투자가 선행돼야 하는데, 민간업체들은 아직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 이유다. 올 들어 전남도는 154㎾ 규모의 변전소 38곳 가운데 곡성·해남·화원·영암·영광 등 12곳의 용량이 초과, 더 이상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 생산이 불가능해져 정부와 한국전력 측에 대책을 촉구하기도 했

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뒤늦게 지난 8일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을 개정, 변전소당 용량을 기존보다 최대 35MW(25%)까지 높였다. 하지만 채 한 달도 안 돼 변전소 5~6곳의 용량이 바닥난 것으로 전남도는 파악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민간투자자와 전남도가 늘어난 용량을 서로 차지하려고 경쟁을 벌이기도 했다.

특히 이 같은 현상은 태양광과 풍력 자원이 모두 풍부한 영광, 영암 등지에서 심각하다. 영광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민간투자자들이 100억원 규모의 자체 예산을 마련해 민간 변전소를 설립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 관계자는 "한빛원전에서 생산되는 전력도 광주·전남에서 쓰고 남아 나머지는 모두 수도권으로 가고 있다"며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반시설 부족으로, 민간업체의 투자도 시들해지고, 자원 낭비도 심각해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 수급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민간투자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거래가격이 전력거래소에서 매년 3~5%씩 상승하면서 투자 가치가

높아지고, 잇따르는 원전 사고로 인해 신재생에너지의 생산 및 공급 확대가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한국전력의 기반시설 투자는 이를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일단 변전소의 용량을 늘려놓으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후속 대책은 신재생에너지 수급과 관련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hadol@kwangju.co.kr



아트 광주



지난 31일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찾은 시민들이 광주국제아트페어 아트광주14(Art : gwangju : 14)를 관람하고 있다. 지난 30일 개막해 2일까지 열리는 아트광주14에는 11개국 81개 갤러리에서 참여한 400여명의 작가들이 모두 1500여점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尹시장 "정몽구 회장 직접 만나겠다"

'기업 프렌들리'를 민선 6기 주요 정책으로 내세운 윤장현 광주시장의 기아자동차의 멕시코 생산공장 건설 확정과 관련,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면담을 제안하는 등 대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광주시 등에 따르면 기아차는 지난 27일 멕시코시티에서 오는 2016년까지 멕시코 몬테레이 인근에 10억달러를 투자해 연산 30만대 규모의 소형차 생산 공장을 짓기로 확정했다.

생산차종은 확정 발표하지 않았지만, 현재 북미 지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모델인 '쏘울'을 생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광주시는 기아차 광주공장이 올해부터 연산 62만대 양산 체제를 갖추는 것을 시작으로, 향후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멕시코 공장 신설 계획이 발표되자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광주시는 특히 기아차 멕시코 공장에서 쏘울이 생산된다면 광주공장의 해외 수출

길이 막히게 돼 지역 경제에 큰 충격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높은 생산성을 자랑하는 멕시코는 인건비도 저렴한데다, 북미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멕시코 생산 제품은 미국에 무관세 수출이 가능한 점 등 입지적 장점이 많은 점에서 쏘울의 생산 가능성을 더욱 높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윤 시장은 조만간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만나 민선 6기 광주시가 구상중인 사회통합에 따른 노사상생을 목

기아차 멕시코공장 '쏘울' 생산 팬

광주 수출·지역경제 큰 타격 우려

센터비 제공 등도 건의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시는 기아차 광주공장 노조측도 만나 노사상생 정책의 당위성과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 계획을 설명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광주시의 한 관계자는 "기아차에서 쏘울의 현지 생산은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히고는 있지만, 북미에서 쏘울의 인기가 가장 높다는 점에서 쏘울이 아니더라도, 쏘울과 비슷한 차종을 개발해 양산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현재 (윤장현)시장과 기아차 경영진과는 수시로 통화할 수 있는 핫라인이 구축돼 있지만, 사안이 사안인 만큼 (정몽구)그룹 회장과 직접 만나 방식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정기국회 100일 대장정 세월호법 여야대치 문화전당법 불투명

올해 정기국회가 1일부터 100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간다. <관련기사 4면> 하지만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지난 31일까지 이어지면서 국회가 언제 정상화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난 7~8월 임시국회가 파행으로 법안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한 데 이어 이번 정기국회도 공전만 거듭하다 각종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내년 예산안도 시간에 쫓겨 출속 처리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기국회의 순항 여부는 개회식이 열리는 1일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최대 관건은 국회 내 농성과 장외투쟁을 해온 새정치민주연합이 어떤 방침을 정하느냐다. 새정치연합은 일단 1일 오후 열리는 정기국회 개회식에는 참석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후 본회의나 상임위 등 의사결정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방침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정기국회가 정상개도에 오르더라도 여야는 팽팽한 일정에 쫓길 것으로 보인다. 올해 처음 도입하려 했던 국정감사 분리실시가 무산돼 '원샷' 국정감사를 해야 하는데다 지난 5월 이후 법안을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한 각종 법안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광주·전남지역 현안 법안인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할 수 있게 하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5·18 민주화운동 등 민주화운동을 부인·왜곡·날조한 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반인륜 범죄 및 민주화운동을 부인하는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안(일명 홀로코스트법)' 등이 어떻게 처리될지도 주목된다. 이들 법안은 해당 상임위나 법사위에 계류 중이어서 본회의 통과를 위해서는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발한 입법 활동이 필요한 상황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2015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수시모집 2014. 9. 6(토)~9.18(목)
입학문의 062)605-1114, 1027
광신대학교

전남대학교
높이 날다
교육 잘하고, 연구 잘하고, 취업 잘 시키는 대학

'변화와 혁신'으로 넓은 틀을 깎습니다
탁월한 연구력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합니다
완벽한 취업지도로 학생들의 '꿈'을 이뤄드립니다
시대를 앞서가는 교육으로 미래형 인재를 키웁니다

대형 국책연구의 메카 '우등' / 2013년 이후 16건 2,000억원 수주
'2014 아시아 대학평가' 논문인용 횟수 국립대 1위 (조선일보-QS)
2014 취업률 거점 국립대 3위 / 대학정보공시 '알리미'
유치취업률 호남권(졸업생 1,000명 이상 4년제 일반대) 1위 / 2013-2014 대학정보공시 '알리미'
지방대 특성화사업 7개 선정 전국 공동4위(5년 295억원) / 교육부
고교교육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전국 5위(17억6,000만원) / 교육부

2015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2014. 9. 11.(목) ~ 9. 16.(화) 입학안내 원클릭 서비스: http://ao.jnu.ac.kr 062-530-4708